



詩 창작교실 수강생모집

우리원 예술정보관은 2005년 새봄을 맞아 시(詩) 창작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 창작교실은 시 창작을 위한 이론의 기초와 실기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시 창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기간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서초동 우리원 예술정보관 3층 영상음악실에서 열립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30만 원입니다. 3월 9일 강좌는 무료공개강좌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각종 프리젠테이션 방법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대학생 이상 일반 성인 50명을 정원으로 하여, 3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로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6만원. 6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 및 작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시대 미술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는 미술관의 도슨트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42-2274,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in2museum.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만나는 재미난 연극놀이

어린이연극놀이교실 개최

우리원 예술극장에서는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연극놀이 교실은' 그 동안 주어진 현실, 주어진 공간에서만 지



내고 책이나, 그림, TV를 통해 보던 세상에서 벗어나,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너만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놀이 교실입니다.

연극놀이교실은 오는 3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A, B반으로 나눠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연습실에서 매주 토요일 운영됩니다. 모집인원은 각반 18명 총 36명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02) 760-46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전문 안내원!을 만나요!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도슨트과정

우리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미술에 대한 애정과 일정한 미술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지원자들에게 전시 내용과 작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슨트 교육과정에는 현대미술 강의와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 도슨트로서의 소양을 위

도전!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예술전문인연수(무대기계초급과정) 수강생 모집

우리원 문화예술연수원에서는 공연활성화,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무대예술 자격증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공연장에 근무하는 무대예술, 무대기계, 무대운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 필요한 무대기술 습득 및 다양한 경험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소양의 함양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 무대기초 과정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우리원 문화예술연수원에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받게되며 3월 1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수강에 관한 문의는 문화예술연수원 02)760-4654로 전화하시거나 우리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무대예술아카데미 신입생 추가모집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무대예술 교육과정으로 1992년 개설, 13년 동안 한국의 무대예술 분야를 이끌어 온 인재 양성의 요람인 무대예술아카데미가 2005년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전공으로는 무대의상 5명, 연기 10명으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입학지원서를 다운 받으시고 우리원 문화예술연수원, 본관 안내실 및 예술극장, 예술정보관 문헌정보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02)760-4663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김정희 <표정 없는 놀>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관
- 6 <음악이 흐르는 고향 숲> / 섀터퍼링세극장
- 6 어린이극 <올리버트위스트> / 하늘평소극장
- 6 2005 시선 집중-극작가전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6 김지예 개인전 <7기의 방Entre-deux chambres> / 문예진흥원 인사미술공간
- 6 2004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귀국전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2관
- 9 한국현대무용뮤지엄 (Musum, Modern Dance KOREA)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 10 2003/004 PS1 참가작가 귀국전 김옥선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소갤러리
- 13 <고집쟁이 당나귀 푸푸> / 두레홀
- 13 <신데렐라> / 청조콘서트홀
- 13 <미스 루사> / 제일화재 세실극장
- 13 루트윈 연극 <클로저>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13 극단 레히 뮤지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13 목화리퍼터리컴퍼니 20주년시리즈 피날레작 <천년의 囚人> / 극장 이릉구지
- 16 건축가 원재무의 서울의 영감, 종경의 매혹전 - 청계천 다리복원기금 마련전 / 광화문
- 20 <노트르담 드 파리>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20 <Kiss The Wind-바람의 키스> / 설치극장 정미소
- 27 <윤석화의 위트> / 우림정담씨어터
- 27 가족드라마 <다녀왔습니다> / 발렌타인극장 1관
- 27 <호랑이 아줌마> / 게릴라극장
- 27 극단 넷 <호랑이 아줌마> / 대학로 게릴라 극장
- 31 <라이방> / 정보소극장
- 31 뮤지컬 <JUMP (점프)> / 세종문화회관 퍼포먼스홀

1일 이승경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김선경 뮤지컬 이야기 콘서트 / 정동극장
 <쇼콜라>(-20) / 핑키하우스
 개미프로덕션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20) /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아카펠라뮤지컬 <거울공주령강이아이>(-27) / 소극장 축제
 극단 우리 <해와 달이 된 오누이>(-31) / 암사어린이극장
 극단 우리 <개구리 왕자>(-31) / 올림피아예술극장
 극단 우리 <세계일주를 떠나는 마녀할머니>(-31) / 뷔프라이아트홀
 PMC프로덕션 <판도라의 날개상자>(-4,10) / 동영아트홀
 개미프로덕션 <인형아놀자>(-4,30) / 낙산씨어터
 백수광부/JT컬처 <년 특별하단다>(-5,8) / 인텔아트홀2관

2일 소리울 앙상블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김대환 선생 추모공연 및 제1회 전국타악경연대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정재국 피리 독주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3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김윤영 첼로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목요상설] 실내악단 <한바탕> (예술가는 마법사) / 국립국악원 우연당
 오페라 <라보엠>(-12)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열기획 <씨앗-우정촌 박사의 선택>(-4) / 부산시민회관 소강당
 고래기획 <BLASTED(폭풍)>(-6) / 인아소극장

4일 소란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성우향 판소리연구소 제자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성시어터라인 <신비한 거울의 소원>(-4,3) / 상상화이트소극장
 정수년 해금콘서트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5) / 정동극장

5일 프로모션 감 - 2005년 전국순회 신춘음악회(-6)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소프라노 이숙영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토요상설] 이치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헤화동1번지3기동인 <Fe부활展>(-6,19) / 연극실험실 헤화동1번지

6일 황주영 개인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7일 소프라노 박지영 귀국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8일 이성공감2005(-13)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테너 옥상훈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화요상설] 박현숙 가사극 / 국립국악원 우연당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샵-국내1(-10) / 폴리미디어씨어터
 즐거운사람들 창작뮤지컬 <김치꽃만두>(-5,1) / 섀터퍼링세극장

9일 정정호 바이올린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005 아시아미술전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해류궁 성애촌 송공연 <전통춤의 그림자를 밟아보다> / 국립국악원 우연당
 박윤영 개인전(-27) / 문예진흥원 인사미술공간
 극단 연우무대 <Opera Stalking>(-4,3) / 연우무대소극장
 극단 손가락 <개구리 왕자>(-5,1) / 하늘평소극장

1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오페라 <루치아>(-13)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성공감2005 - 파임커뮤니케이션즈 <부부 쿨하게 살기>(-4,9)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소프라노 윤명자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목요상설] 안미아의 춤 / 국립국악원 우연당
 11시 콘서트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열기획 <씨앗-우정촌 박사의 선택>(-13) /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극단 사조 <Promise, 그날>(-27) / 블랙박스씨어터
 비즈프로덕션 <러브퀵트>(-27) / 인아소극장

11일 목계월 경기소리 대공연 / 국립국악원 예약당
 김경아 피리 전통음악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서울예술단 가무악 고대의 향기 <무천> <산화가>(-13)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한국연극연출가협회 - 신춘문에 당선작 공연(-2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12) / 부산시민회관
 <맛짱부부2>(-5,8) / 까망소극장
 극단 산울림 <고도를 기다리며>(-5,8) / 소극장 산울림

12일 소프라노 박미경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토요상설] 남려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백영춘의 서울소리 재담소리 / 국립국악원 우연당
 공연기획 MCT - 오늘의 창작가 Big4(-13) / LG아트센터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샵-국내2(-14) / 폴리미디어씨어터

13일 이정재 · 정지영 피아노 듀오 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14일 2005 조선일보 신인음악회(-17)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005뉴버전 <아가씨와 건달들>(-5,1) / 정동평판하우스

15일 예진무용단 정기공연 / 국립국악원 예약당
 [화요상설] 박경량 무용 / 국립국악원 우연당
 올해의 작품상 오상길 <고난 속에 피어난 추상>(-31)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이덕인의 <호랑이를 만난 날>(-12,31) / 페이퍼루츠소극장

16일 제31회 한국수채화협회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송암 이원택 사진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2005 대한민국 미술창작대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삶의 소리, 천녀의 노래 정선아리랑 / 국립국악원 우연당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샵-중국(-2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17일 국립국악관현악단 - 겨울의 노래단2005(-18)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예약연구회 세 번째 정기 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목요상설] 실내악단 '이채' / 국립국악원 우연당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샵2-홍콩(-20) / 폴리미디어씨어터
 극단 동승무대 <백수의 꿈>(-4,17) / 동승무대소극장
 극단 인터 <줄리에게 박수를>(-4,24) / 소극장 아리랑
 극단 76단 <관객모독>(-6,19) / 청조콘서트홀

18일 서울시교향악단 실내악의 향연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경기소리보존회 <소리꽃 피는 봄> / 국립국악원 예약당
 강혜련댄스프로젝트 무용 <3D>(-19)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슬담 <The 林의 미니콘서트>(-19)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0 기획시리즈 Best & First - 극단 미추 <선의 저편(The other side)>(-4,3)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 한국 창작 음악의 밤 / 영산아트홀
 극단 문예 <백조의 호수>9-4,15) / 청조콘서트홀
 SLIM엔터테인먼트 <노노이>(-6,19) / 상상나눔씨어터

19일 국립합창단 - BACH Johanne Passion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토요상설] 무역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주한외국인 문화학교 개강식 / 국립국악원 우연당

20일 김병호류 가사극산조보존회 특별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21일

22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우리 동네 지도로 그려보기 - 어린이 눈으로 바라 본 서울(-5,30) / 광화문
 한국정악원 제24회 전국신인국악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화요상설] 백현순 무용 / 국립국악원 우연당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미탄의 사수>(-26)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개미프로덕션 <별빛나라 이야기>(-4,10) /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23일 2005 여성미술전(-29)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김영갑 사진전 2005 <구름이 내게 가져다 준 행복 / 눈, 비, 안개 그리고 바람 환상곡>(-4,5)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타인의 취향전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2005 류별로 본 우리춤 아홉 번째 / 국립국악원 예약당
 국제음악제 MUSIC TODAY SEOUL 2005 / 국립국악원 우연당
 극단 유리가면 연극 <저별까지 날아라>(-30)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4일 국립무용단 - 중견인무가 초대전 <주목-흐름을 눈여겨 보다>(-26)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시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오페라오페라 하이든 천지창조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05 한 · 일 우정의 해 기념 초청 공연 - 연극 <선택(選擇)>(-25)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목요상설] 실내악단 '하늘지기' / 국립국악원 우연당
 MCT <바람벽>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200 기획시리즈 Best & First - 극단 컬티즌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4,1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지구연극연구소 <안녕! 모스크바>(-5,8) / 극장 이릉구지

25일 서울시교향악단 제648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전통음악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극단 골목길 <춘추예찬>(-26) / 북사골문화센터 아트홀
 MET <안내보! 못내보!>(-4,24) / 로빈아트홀
 극단 여행자 <의자들>(-4,3) / 학전블루소극장
 키덜트문화 황금겨자씨 <동글나라 뽀족나라!>(-5,29) / 충무아트홀소극장

26일 Gospel Korea 2005-한국 복음성가 30주년 기념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항! 나는 클래식 2005>2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토요상설] 응중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김귀선 판소리 수궁가 완창 / 국립국악원 우연당
 이야기 콘서트 <시리동동 가미동동>(-27) / 고스투홀

27일 임미정 피아노 독주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스페인 가곡의 밤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26회 풍류의 밤 / 국립국악원 예약당
 김혜정무용단 <블루지젤>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28일

29일 이수정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화요상설] 오현숙 판소리 / 국립국악원 우연당

30일 소프라노 정선경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마스트미디어 연극 <세익스피어의 모든 것>(-4,5)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극단 차이무 <행복한 가족>(-4,30) / 블랙박스씨어터
 수/JT컬처 <나생문(라쇼몽)>(-5,1) / 청아소극장

31일 [정악단 정기공연] 자연을 노래한다 <응중농월> / 국립국악원 예약당
 [목요상설] 조경아의 춤 / 국립국악원 우연당





미술, 뉴에이지를 만나다

뉴에이지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유명 미술작품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과 숨은 이야기, 유명 화가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며 뉴에이지 음악가들이 전하는 음악적 메시지와 그들의 음악적 삶을 반추할 수 있다.
양한수 지음 / 시공사 발행



모형 속을 걷다 - 이일훈의 건축 이야기 -

이 책은 20여 년간 건축판에서 일해온 건축가 이일훈의 그동안 설계한 작품들을 되돌아보며 써내려간 건축 이야기인 동시에 건축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삶 이야기이다. 저자는 '채 나눔'이라는 설계 방법론을 그의 작품에 담았다. 채 나눔은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늘려 살자'. 이일훈 지음 / 솔출판사 발행



어린이 장자

장자는 많은 부분이 우화로 이루어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비굴함, 오만함과 추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 장자'로 어려운 철학이 아닌 우스우화처럼 재미있고, 어린이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지혜 보따리라 할 수 있다.
이규경 글·그림 / 효리원 발행



편집이란 어떤 일인가

1969년 고단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편집의 길을 걸어온 일본의 노 편집자가 정리한 편집 실무 지침서. 서적 편집자가 하는 일의 실재를 저자의 35년간 체험을 바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하고 있다.
와시오 겐야 지음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발행



사로잡힌 영혼 맘루카

19세기 영국 지배하의 이집트 카이로, 작은 국제사회를 매료시킨 시대를 앞서간 한 젊은 여성 사진가의 도약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20세기 후반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회와 흡사한 이집트 격동기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한 가족사를 애정 어린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로베르 슬레 지음, 윤은오 옮김 / 아테네 발행



벽-건축으로의 여행

2001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 번역되어 큰 호응을 얻은 책. 지은이는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에 중점을 맞추어 벽이 우리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며 발전되었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시·공간 여행을 이끌어간다.
에블린 페레 크리스텔 지음, 김진화 옮김 / 놀와 발행

3월의 새로 나온 음반



장월중선의 음악세계

국립민속국악원 기획 / YBM 서울음반 발매

국립민속국악원 기획음반 제6집. 호남 예인의 집안에서 출생한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1960년대부터 경주에서 판소리, 창극, 무용 등 국악 활동의 기틀을 잡은 장월중선(본명 정순애, 1925~1998), 1993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병창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8년 건강이 악화되어 74세로 생을 마쳤다. 이번에 발간된 음반에는 고사창, 거문고산조, 아쟁산조, 시나위합주, 천수바라, 도량계 등 모두 6곡이 수록돼 있다. 음반에 담긴 곡들은 그리 녹음 상태가 좋지 않지만, 장월중선만의 연륜과 깊이 있는 성음, 즉흥적 요소, 그리고 여러 장르와 악기에 메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혼이 담겨 있어 전통음악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남을 것이다.



창극 신판놀음 DVD

국립민속국악원 발매

지난 2004년 4월,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른 창극 <신판놀음>의 공연 상황이 비매품 DVD로 제작되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기획한 이 공연은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심청가' 다섯마당으로 꾸며다. 첫 번째 길놀이 마당에 이어 신영희 명창의 '이별가'가 시작되면서 '춘향가', 창극이 시작됐다. '수궁가' 마당은 남해성 명창이 토끼역을 맡으며 이끌어내고, '흥보가'에서는 박승희 명창의 인도로 흥보가 박을 타고 사당패나 제바나라의 장수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준다. 매뉴에 제작 의의, 줄거리, 배우/제작진 소개 등이 나오고, 영어로도 볼 수 있다. 명창 신영희, 남해성, 박승희, 송순성, 유영애, 고수 이성근이 참여했다.

『달의 제단』을 읽고 나서

심윤경 장편소설 / 문이당 / 2005



시 소설, 희곡은 내가 줄곧 읽어온 책 읽기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와 소설을 읽지 않게 되었다. 시와 소설의 고전은 아직도 곁에 두고 읽고 있지만, 새로 나온, 젊은 작가들이 쓴 시와 소설은 나와 멀어졌다. 책방에 가서 최근에 나온 시와 소설은 아예 살 엄두

가 나질 않았다. 그 이유는, 독자로서 감히 말한다면 읽을 수 있는, 읽을 만한 작품들이 많지 않고, 소설의 문체가 가벼워진 나머지 진중한 작가의 작품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일 터이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대로 젊은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읽으면 "불편한 감정", "일말의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연극평론가로서 데뷔한 이래 문학평론가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시와 소설을 읽지 않는 통에 그들과의 교류도 뜸해졌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횡수도 줄어들었고, 출판사에서 만나 시와 소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턱없이 증발되고 말았다. 다들 출판사장이 연극계처럼 불황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확대하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위기이고, 이를 한 통속으로 묶으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나부터 젊은 작가들의 시와 소설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이 점점 요원해졌다.

『달의 제단』을 읽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누가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소설에 대한 평론을 읽은 것도 아니었다.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1972년생 심윤경이라는 젊은 작가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2002년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므로, 작가와 작품은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는 바도 아닐 듯싶다. 내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것은 신간을 뒤적거리다가 읽은 "어둑한 사당 안에서 넓은 심의 자락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두 손은 공손히 땅을 짚고 있었다"라는 소설의 첫 구절 덕분이다. 내가 구입한

이 장편소설은 2005년 1월 6쇄로 발행된 것이었다. 2004년 5월 초 판 1쇄를 찍은 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새를 거듭한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은 꽤 알려진 것 같다.

이 소설은 흔히들 말하는 가벼운 소설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문체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소설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주제의 깊이, 인물들의 묘사, 구성의 전개, 언어의 구사가 소설답다. 제대해서 곧 복학할 예정인 주인공 조상룡, 그의 뒤로는 그를 피로써 움직이는 가문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있고, 그를 공간적으로 억누르는 종갓집인 고택 호계당이 있다. 이 소설에는 '10여 통의 언찰'이라고 하는 옛 편지글이 현재의 사건들과 오버랩한다.

언찰은 할아버지의 8대 조모의 유품으로, 호계당으로 시집와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죽어간 안동 김씨 며느리가 친할머니에게 보낸 것이다. 주인공은 옛 편지글을 해독하면서 가문과 자신의 "몸속을 가득 채운 악몽과 저주"(273쪽)의 역사를 알게 된다. 그것은 10대 조모가 겪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핏줄의 몸뚱이를 짓밟는 거대한 짐승의 발길, 아무런 저항 없이 바스라지며 여러 골격이 내뱉는 파쇄음, 뭉그러진 달팽이의 잔해를 지켜보아야 하는 무력한 자의 공포"(272쪽)였다. 인간은 소설의 갈피마다 지리 잡고 있으면서 오늘의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주인공 아버지의 불화, 할아버지와 손자인 상룡의 갈등, 상룡과 집안 살림을 맡아하는 달시 룯택의 딸 정실과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나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오랜만에 소설 읽는 재미에 빠질 수 있었다. 읽기 시작해서 단박에 소설을 다 읽었는데 누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한 "집안의 집요하고 침착한 불운"(273쪽)을 쓴 소설의 재미와 놀라움이 섞여 들었다. 하나는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도 "옛 날식의 정열"(작가의 말에서)이 가득한 글쓰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와 그가 살고 있는 당대의 삶을 평균적인 잣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인이었다. 이 소설을 읽고나면, 요사이 젊은 작가들의 소설은 이렇게라고 겹잡아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진술인지 깨닫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글쓰기의 구경(究竟)을 실천하는 작가들은 있기 마련이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귀한가?

안치운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극평론가